

# 무의탁 노인 돕기 '자비 물결'

## 김제 행림사, 108세대에 떡·김치 전달 밀양 용암사, 납골함 153기 시에 기증

김제와 밀양지역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떡과 김치, 납골함 제공 등의 자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 행림사주지 행림사는 12월 29일 무의탁 독거노인 108세대에 떡과 김치 160박스를 김제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떡과 김치는 신도들이 직접 논밭에서 가꾼 쌀과 배추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김제평야 한가운데 있는 빈농가를 월세로 얻어 올해 초 행림사를 개원한 세수 64세의 행림 스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며 "올해부터는 독거노인들에게 떡과 도라지 손질 등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마지막 귀의처가 되도록 독거노

인을 위한 납골당도 건립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행림사는 2000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김제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결성,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김 등 반찬을 제공하는 '사랑의 음식나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밀양 용암사주지 선행도 최근 경내 납골당의 납골함 153기(사자 2억3천만원)를 무의탁 독거노인으로 밀양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용암사는 2월 11일 열리는 납골당 개원법회에서 납골함 기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행 스님은 "납골당의 분양수익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납골당의 분양가도 1기당 150만원으로 책정해 저



소속층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깨달음의 의미 '다시 한번'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절 법회가 광주와 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봉행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희)는 12월 26일 남도에 슬하관에서 '성도절 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암도 스님 초청강연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천운 스님(대흥사 주시), 광민 스님(승보회장) 등 지역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은태 국회의원 등 관내기관장, 재가불자 등 6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암도 스님은 특별강연에서 "부처님이 6년고행 끝에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연기법이다"며 "무명이란 욕심을 버렸을 때 부처님과 같은 참사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지역불교 발전에 앞장서온 임희철(서부경찰서 불자회장), 이숙희(광주사암연합회 합창단장), 김재덕(광주 운전불자회장) 불자에게 '제1회 광주불교 포교상'을 수여했다. 광주불교 포교상은 급년에 처음 제정된 상으로 10여년째 신행단체를 이끌어온 단재장에게 수여했다. 또 반야, 향림, 연화, 선덕유지원 등 광주지역 4개 불교유지원생들이 출연해 1년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2월 26일 보광원 조실 화산, 동화사 주지 지성, 천태종 대성사 주지 문덕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대구회관에서 성도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구 사원주지 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성도절을 계기로 성불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정진해 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준엽·김원우 기자

## 생명나눔 치료비 900만원 지원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은 12월 30일 전남대병원 회의실에서 생명나눔 기금지원식을 갖고 900만원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전달한 기금은 지난 11월부터 두달 동안 문빈정사 앞에서 '소아암환아들기공연' 등을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소아암을 앓고있는 김용태(7살, 소아백혈병) 김한결(13살, 저

성장증) 양동화(16살, 골육종) 등 3명의 환자에게 전달됐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운동, 혈소판 공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투병지원사업 일환으로 진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에도 7차에 걸쳐 14명의 소아암환자들의 치료비로 총 4천9백9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이사 진희삼(광주 중심사주지)과 임직원 등이 소아암 환아와 병원 진료진에게 치료기금을 전달했다.

## 불광사, 제1회 흥사단 투명대상 수상

서울 석촌동 불광사(주지 지정)가 제1회 흥사단 투명대상을 수상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구치모, 경성대 교수)는 12월 26일 흥사단 강당에서 제1회 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불광사에 제1회 투명대상을 시상한 이유로 △회계감사의 무가 없는 종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단체의 모범 △기업의 회계부정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상황에서 불광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신성한 충격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우리결 우리신도

### 늘 부처님 곁에 있고 싶어요

#### 서울 돈암동 해인사 박선희 총무

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라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해인사(주지 혜경) 박선희 총무(52, 법륜회)를 만나보라. 그러면 차차 의문이 풀릴 것이다. 박 총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맞절을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배 합장이

손을 잡고 절을 찾았지만 '신심' 깊은 불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이 수원 달마사 주지 소임을 맡을 때부터 인연을 맺은 박 총무는, 이제 매일 절에 '출근'한다. 공양주 보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스님 공양 준비부터 도량 청소, 신도관리 등 박 총무는 해인사 원주, 재무, 총무 역할을 한다. 스님이 2년 전 해인사에 처음 왔을 때였다. 첫 초하루 법회 때 찾아온 신도는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스님과 박 총무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포교한 덕분에 이제 신도관리 카드에 기재된 신도만 100명이 넘었다.



#### 2년간 열심히 포교·시봉 신도 100명으로 늘어나

이렇게 박 총무가 절일을 열심히 하게 된 데에는 스님의 영향과 남편의 도움이 크다. 전 불광사 회주 광덕 스님 밑에서 공부한 스님은 예순이 넘은 세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수행자에게 자가용은 사치라고 가르쳤던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쁜 때면 절에서 자는 것도 이해해주는 남편이 고마울 뿐이다. 신도들에게 늘 웃음으로 맞는 박 총무에게도 남편이 아픔이 있다. 서른다섯 살에 낳은 아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든든하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정도로 아들의 건강이 호전됐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님과 인연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다. 박 총무.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저 부처님 곁에 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을 뿐이다. 남동우 기자

라도 한다. 그러면서 서로 건네는 말 한마디. "여보 오늘도 직장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당신도 절일, 가정일 하느라 힘들었지?" 남편이 출근할 때도 서로 반배 합장을 한다. "성불합시다." 남편이 보면 낄낄 웃는다(모습일지라도 이 부부에게는 자연스런 일과다. 부부가 서로 절을 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혜경 스님이 펼치고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덕분이다. 박 총무는 혜경 스님과 인연 맺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어릴 때부터 친정어머니의



#### 주년의 말 혜경스님 해인사 주지

#### "수행하는 맘으로 봉사"

스님을 시봉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총무는 절일을 하면서도 전국 각지의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불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박 총무의 마음 덕분에 저도 포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박 총무님 가정 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지길 기원합니다.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형: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목숨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형: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숨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2월 넷째주, 다섯째주 (월~금)
- ◆ 수련과정 (1대1 개인지도도,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저자 법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 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